

서울시,거리두기강화로 업무증가'배달경비노동자'에 마스크322만장 긴급지원

특고·프리랜서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배포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배달·콜센터노동자와 지속적인 대면업무를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가사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에게 마스크 322만장을 지원한다. 또 시민과의 접촉이 잦고 야간·새벽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과 밀접근무 환경의 콜센터 등 총 364곳에 공기 청정기, 간이칸막이 등 감염예방 물품 구입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마스크 배포 분량 중 1만 2천여 장은 코로나19로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든 봉제노동자들에게 제작을 맡겨 작은 소독이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봉제노동자는 면마스크 제작시 장당 1,000원의 공임을 보장받는다. 보통 1일 8시간 동안 100장 가량의 마스크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2,500원 수준으로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먼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및 음식배달이 늘어 실 새 없이 일하고 있는 음식배달노동자 및 택배노동자와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시민과 대면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플랫폼노동자 약 10만명에게 1인당 30장의 KF94마스크를 지급한다. 총 지원량은 291만 2천장이다. 마스크는 주요 특고·프리랜서노동조합과 플랫폼기업 사용자단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 신분으로 영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5곳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봉제노동자들이 제작한 면마스크는 방한기능도 갖추고 있

어 대리운전 등 주로 늦은 밤에 일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중점적으로 배포예정이다. 입주민들과 지속적인 대면을 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도 KF94마스크를 지급했다.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아파트경비노동자 자조조직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 한 후 1인당 10장씩 총 12,500명에게 배포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위험이 높은 고밀집 청소노동자 휴게실과 콜센터 작업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 중이다. 먼저 서울소재 322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휴게시설에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최대 1,500만원, 총 3억 7,500만원을 지원하며 12월 중 완료 예정이다. 시는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이동범위가 넓고 또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밀집·밀집·밀폐환경에서 일하는 콜센터노동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공기청정기 마스크 간이칸막이 체온계 손세정제 구입비용도 기업 당 최대 500만원씩 지원한다. 현재 4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현재도 지원신청을 받는 중이다.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의 감염예방 물품구입비용 중 70%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20%를 서울시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배포 및 작업환경개선 지원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긴급하게 배포하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 주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코로나 죄인 다음 차례는 당신?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도 증가하고 일명 감감히 환자들 이 속출하면서 전파가능성은 속수무책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급강하한 기온처럼 매서운 겨울 날씨가 한 몫 더하고 있다. 특히 임용고시를 못 치른 일명 서울 노랑진 발 수험생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어쩌다 운이 좋아 시험을 치른 다음 검진 대상자로 지정되거나 확진자로 밝혀져 같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까지 감염 우려를 받고 있다. 어제도 서울 노랑진을 다니던 감사로부터 학원에서 강의를 들던 중학생이 감염되었고 함께 수업하던 학생들 또한 감염 경로에 포함되어 검사를 받는 등 전과 경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지 대략 난감이다. 무색, 무미, 무취의 역병이 창궐하면서 죄 없는 죄인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지 않고 그랬는 모르고 그랬는 간에 감염 경로가 된 사람은 옮겨진 사람으로부터 일단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의 일일까. 물론 아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내려앉고 먹고사는데 대한 신경이 민감한 지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특정인만의 일이 아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파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었을지라도 사람이 막판에 몰리면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전파자에 대한 원망, 분노, 심지어 좀비보다 더 무섭게 번지는 반인륜적 편견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평소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그 피해는 심각하다. 남이야 어차피 안면물수하고 대놓고 비난하거나 너 때문이라는 인신공격형 말도 가능하겠지만 가족이나 친구나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파자이기에 앞서 자신도 원치 않는 경로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심지가 타오르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파자는 그동안 쌓았던 친분과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약몽으로 돌변한다. 뭐가 달라질 것도 없으면서 회복되지 못할 거리감과 한순간 무너져 내린 각자의 일상은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하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전파자도 피해자라는 점과 누구든 전파라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감염은 치료하면 되는 것이므로 회복이후에도 마음까지 회복의 속제로 남겨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코로나19가 유행하게 설치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는 이 땅에 질병이 없었을까. 그 때마다 서로 으르렁 거린다면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 지독한 경신대기근도 넘긴 민

족이며 동족상잔의 비극에서도 거론이 일어난 저력이 있다. 마치 좀비처럼 번지는 질병의 확산에 대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맞을 건 맞고 피할 건 피하는 긴장과 대안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에 대한 사회적 안배의 캠페인이 시급하다. 주변에서 확진되었다는 한마디에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벌레 보듯 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강력한 격리조치와 확진자 스스로가 자진하여 위대한 한민족이 옮겨지지 않도록 자가 치료의 지침을 지켜야 하며 주변에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관찮다, 그럴 수 있어, 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남의 일이 아니라 하며 완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어차피 매는 맞아야 하더라도 아픈 사람에게 마음까지 아프게 해서 위대한 한민족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평소 지역감정에다 지지 않으려는 승부욕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도 있듯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위기에 서는 거짓말처럼 잘 몽친다. 그랬으니 오천년을 버텨온 게 아닐까. 이 좁고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질병이 가란다고 갈 것은 아닐진대 어지간하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는 중국의 우한에서 출발했다. 신천지도 아니고 특정 정치인도 아니며 교회나 요양원도 아니다. 모두 피해자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 사전에 프레임 씌워 각을 쓰고 사포질을 해가며 만들어가는 죄인이었어는 안 될 일이다. 설마 코로나19가 십 년 백 년 같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종식되겠지만 그 이후 어쩔 것인가. 불안 점에 잡자면 어린이어깨를 물고 뒤통나간 개를 사람을 물었다며 개잡듯 잡아버린 다음 그게 아니면 그뻘 어쩔 것인가. 아니면 말고 일까. 요즘 분위기로 바서는 누구든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든 코로나19의 주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여차하면 주변으로 물려 개인이건 단체건 한 순간에 분말로 만들어지고도 남는 분위기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역병이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치지만 사람까지 사람을 잡아서야 될 일인가. 사람은 하늘이라 했다. 만인이 평등하며 모든 백성이 귀하고 그 인격은 누구든 사람위에 사람이 설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살기위해 죄 없는 남을 해하는 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어이 벼랑 끝으로 여론의 이목을 편향되게 몰고 가는 건 역병이 그쳐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현상이 도처에 일어난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사람과 질병을 구분하여 사람의 마음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덕암 김균석

김영록 전남지사, "코로나19 긴 터널서 이겨내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앞으로 2주간 전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도민 협력을 당부했다. 김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통해 "24일부터 정부의 호남권 전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타 지역과 연계해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감염 경로가 미확인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계절적 요인으로 감기와 혼동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 자제 및 사람 간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특히 "갑기로 착각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은행 구내식당, PC방, 호프집 등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또 "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시간, 장소에 무관하게 감염우려가 높아 사회적모임과 회식은 자제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삼가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종교시설 좌석수를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아울러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이번 수능에 도내 53개소에서 1만 4천여명이 시험을 치른다"며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치료중인 병원에서 시험이 가능토록 의료진과 병실 10실을 확보했으며 격리 중인 수험생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했다. 한편 김 지사는 "2단계로 격상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우리 핏속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호남 정신이 있다"고 말하고 도민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코로나 대유행 지역확산 방지 대응 철저 주문"



이한주 남원시장이 23일 '시정소통의 날'에서 23개 읍면동장들에게 12월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무증상 전파가 많고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대 유행을 대비해 전 행정 분야에서 초긴장, 대응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체 행사 같은 경우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라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하고 관외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철저히 체크, 관리하라"며 "개인적으로로는 타지 방문 및 모임, 회합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 대처 지시 외에도, 각종 업무에 관한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곧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꼼꼼히 챙겨, 한 해 시정살림을 잘 마무리하자"며 "이

월액,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집행물을 더욱 높이자"고 지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시에선 여느 해보다 각종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사 등이 많았다"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대민서비스를 신경 쓰고 각종 준수사항 등을 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례회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에게 "시의회에서 나오는 각종 시정상황과 의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항들이 만큼, 성심껏 대응해 줄 것"을 지시하며 "시가 추진해 온 행정방향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달라"고 지시하며 "동정기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일도 공직자가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Advertisement for Namwon City featuring the Namwon City logo, the slogan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and an illustration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박근철 대표의원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정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천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박 대표의원은 장적인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취임 이후 짧은 시간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유일교섭단체

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면서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을 무리없이 성사시켰다.또한 4개 상임위원회에 5급 임법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의회의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썼다.박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신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열/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 예산 확보 절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21년도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고 경기도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증액 및 충분한 예산 확보 논의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질의 서두에 “'21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총 2,392억원으로 국비사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작년 예산대비 123억이 감액됐다”고 언급하고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인 5.74%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대비 예산이 4.9%나 감소한 것”이라며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핵심사업은 물론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부서의 사업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퇴비부속도 감사 의무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축산 관련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허술한 것 같다”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이어나갔다.김봉균의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무엇보다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사전에 면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단순 필요성을 근거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축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타 시·도 및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민경선의원은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비용 및 도내 가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의 시급성에 대해 불구하고 대체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을 지적하고 세심하고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건립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민 의원은 “대규모 도비 투입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사업 등의 경우 당초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액을 예산부서에서 상당부분 감액해 최종 제출했다. 앞으로 사업부서는 철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동의원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대부분 전년기준 감액 편성됐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려했던 사안인 코로나19로 인한 레저세 감소와 말산업육성기금 확보 부족에 따른 결과이다”고 말하

며 “경기도에서 말 산업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적극 고려해 한정된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육성·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금 확대를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근철의원은 “축산업은 농촌 경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산업으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20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도내 축산인 및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생산액 대비 홀대 수준인 경기도 축산 예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사업부서와 의회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축산예산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스마트 도시 안양에서 대한민국 미래 교통을 보다.

안양시, 자율주행·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안양시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등 첨단교통분야에서 총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250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미래 교통혁신의 선두 주자로 나설 전망이다.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주관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4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경기도 주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경기 First'공모사업에도 2년 연달아 이름을 올리면서 도비 105억을 확보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가 예산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크다.2023년까지 첨단 교통분야 대규모 사업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안양형 디지털 뉴딜 또한 탄력을 받는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경 안양시는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 교차로에서는 교통량이 따라 교통 신호 주기가 자동으로 바뀌고 긴급

차량은 우선 신호를 받아 막힘없이 운행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받아 교차로를 불트듯 통과하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충 위험을 사전에 영상으로 알려주고 자율주행 시범구간에서는 인공지능 CCTV의 도로 감시를 통해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을 대비한 보행자 경고 및 방어운전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주차정보시스템은 시 전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현황 조회를 가능하게 해 예약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이와 같은 시스템은 학교, 교회,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으로 확대 및 민간 주차공유 플랫폼 연계로 확산돼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기술과 안양시 안전귀가 서비스가 결합된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의 운행 그리고 개별 IoT서비스의 광역 확산 기반을 제공할 '경기IoT거점센터'건립은 전국 유일의 안양시민의 독창적인 혁신 시스템이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은 심야 시간에 평촌 일대를 시범운영하게

되며 모바일앱을 통해 운행정보 확인, 탑승 예약, 결제, 안전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리미엄 셔틀 서비스다.

안양 범계역 인근에 들어설 '경기 IoT거점센터'에서는 첨단교통서비스 전시와 자율주행 셔틀 탑승 체험이 가능하다.특히 이곳의 통합관제실에서는 교통, 방범, 재해, IoT서비스, 자율주행 등 시 전역에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안양시는 스마트시티 미래 교통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전시장장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년간 안양시는 수많은 도전 끝에, 스마트시티의 미래 교통을 구현할 추진 동력 확보에 성공했다. 또한 안양시는 전국에서 자율주행, ITS 등 교통기술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미래 교통에 대한 안양시의 투자는 시민의 교통복지와 서비스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정부/기자

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급식, 지역경제 외면” 질타

325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학교급식 지역산 사용실태 저조...공급체계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4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도내 학교급식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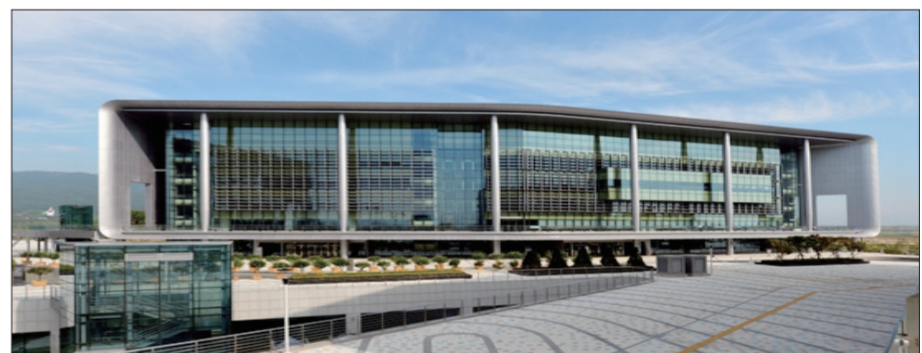
오 의원이 지난해 충남의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849억원 중 547억원에 불과했다.수산물의 경우 금액 대비 1.5% 수준으로 거의 전무했고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의 경우 지역산 사용 비중이 6.7%에 그쳤다.가공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김치의 경우 전체 구매금액 82억원 중 62억원을 다른 지역산 구매에 사용했고 특히 만두와 빵, 어묵, 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 6000억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르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산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급솔림 현상도 뚜렷하다”며 “구매금액이 연간 24억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

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도내 업체가 여럿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공급 비중은 50%대를 넘고 심지어 도내 일부 지역에선 한 두개 업체가 독점 납품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도의 학교급식 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5억원에 이르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의 2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며 “관련 조례에서도 지역 농

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가공품도 의무적으로 지역산으로 사용하고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토록 돼 있다”며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원호/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평택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구 독 신 청, 배 달 안 내 :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팩 스 : (02)2060-4147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전략적 기획단속 실시

24일부터 한 달 간, 골판지 인쇄시설 대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 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 녹조 등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잉크 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 소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 4월 A사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로부터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두 차례나 연이어 발생해, A시는 관련

업체를 고발·행정처분 했으며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도 특사경은 A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 97개 소 사업장 중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 등 입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단속업체 39개소를 선정해 A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단속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발생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부적정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대상 외에도 추가 위반업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실태 및 위반사례 등 수사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단속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구리, 시안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용/기자

김해축산물판매장 불법집회 김해시 입장

김해시는 시 청사 앞에서 집회 신고를 위반해 장기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구속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대화를 통해 불법집회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일관된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장기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시 직원업무 집중력 저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로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

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시는 불법 집회인들이 마치 시가 경남예술훈육원 건립 부지를 선정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예술훈육원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교육청으로 축산물공관장 부지는 여러 사업 대상 예정 부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축산물공관장 부지가 사업 부지로 확정된 바 없으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상 부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경양돈농협 측의 주장에 의하면 축산물공관장에서 20여년간 임대집포를 이용한 세입자 23명중 15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미 합의를 완료했으나, 불법 집회자 8명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는 상가세입자들이 시장이 대화를 기피하고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시는 상가세입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면담을 가졌으나, 생존권 보장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했고 시장과의 면담도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말하며 시는 언제든지 당사자 간 면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시는 장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부경양돈농협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부탁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장기 불법·탈법 집회로 인해 수많은 민원인, 인근 시민, 청내 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음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집회를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주기를 간곡히 청했다.

남궁영/기자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유해환경 개선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만들 것

2020년도 대입 수능 시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능 전·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과 '코로나 19 지역감염 차단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능 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및 이성혼수 등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과 변화가 노래방 PC방 등에 대해 집중 시행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 담배·주류 등 판매하는 행위 위반, 유해환경 예방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의 청소년 보호와 유해환경 해소하기 위한 지도·단속도 병행한다.

현재 경남도에는 12개 유해환경감시단 430명, 전 시·군 청소년지도위

원 2,700여명이 유해환경 단속과 청소년 지도 및 보호 활동실시로 청소년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고위험·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 감염 차단 캠페인을 통해 수능 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민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영/기자

교란생물퇴치단 11명 투입 가시박·서양금혼초 서식지 1만 6500㎡ 제거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해안가 등에서 서식하며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국비 등 총 1245만원을 투입해 11명 규모로 교란생물퇴치단을 구성해 변산면 일원에서 고유생물을 해치는 가시박, 서양금혼초 등의 서식지 약 1만 6500㎡를 제거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2009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된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서 본래 수박의 병해충을 막으려고 들어왔으나 주변 식물을 휘감아 고사시키고 번식력이 강한 특징으로 이내 전국으로 퍼졌고 '식물 생태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고 있다. 서양금혼초는 흔히 '개민들레'라고



불리며 유럽 지중해가 원산이나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후 토양과 추위에 강하고 제초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가시박과 서양금혼초 등 생태계 교란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변산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퇴치작업을 시행해 다양한 토종생물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

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는 우리 지역의 생물을 보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해 우리의 고유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2020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련회의 개최

울산시는 11월 23일 오전 11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실시하는 '2020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설문 내용과 조사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정매자 과장과 울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읍부조만인 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김혜란 소장,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위원 2명 등 모두 5명이 참석한다. 울산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울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과

성폭력 예방 메시지 매달 방송 송출, 성인지감수성 소규모 교육 강화,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사이버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읍부조만 등 조직문화 개선과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가로 운영할 시스템 건의 등에 대한 내용을 실태조사 설문지에 담을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평등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로 조직문

화개선을 위해 그동안 실시한 시책에 대해 평가받고 직장내 성평등의식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분석해 2021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임실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꼼작 마'

임실군이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20일 임실군에 따르면 이날 26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체납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군청 경

제교통과 및 임실경찰서와 협조해 유기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일제단속기간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체납차량은 단속 즉시 강제견인 후 판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등록지에 상관없

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의도적인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최하은/기자



대구테크노폴리스 에미지 THE CENTRAL & 애비뉴스완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의 협업, 가능성이 현실로 [DDP디자인페어] 지난 20일 개막

DDP 대표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쇼'가 지난 20일 온라인에서 개막

서울의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쇼 [DDP디자인페어]가 지난 20일 서울디자인위크 개막과 함께 온라인 전용 플랫폼에서 문을 열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 도심 제조 산업 활성화와 디자인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서울의 소상공인과 청년디자이너를 연결해 협업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DDP디자인페어]를 작년부터 DDP에서 개최했다.

작년 DDP에서 5일간 개최하던 [DDP디자인페어]를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전용 플랫폼에서 연 중 상설 전으로 선보여 최신 디자인트렌드를 안방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에 두 번째를 맞이하는 [DDP 디자인페어]에는 98명의 디자이너와 61명의 소상공인이 103팀으로 구성되어 5개월간 땀 흘려 개발한 신제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는 지난 6월 [DDP디자인페어] 온라인 매칭 플랫폼 신청을 통해 처음 만나 5개월간 디자인 제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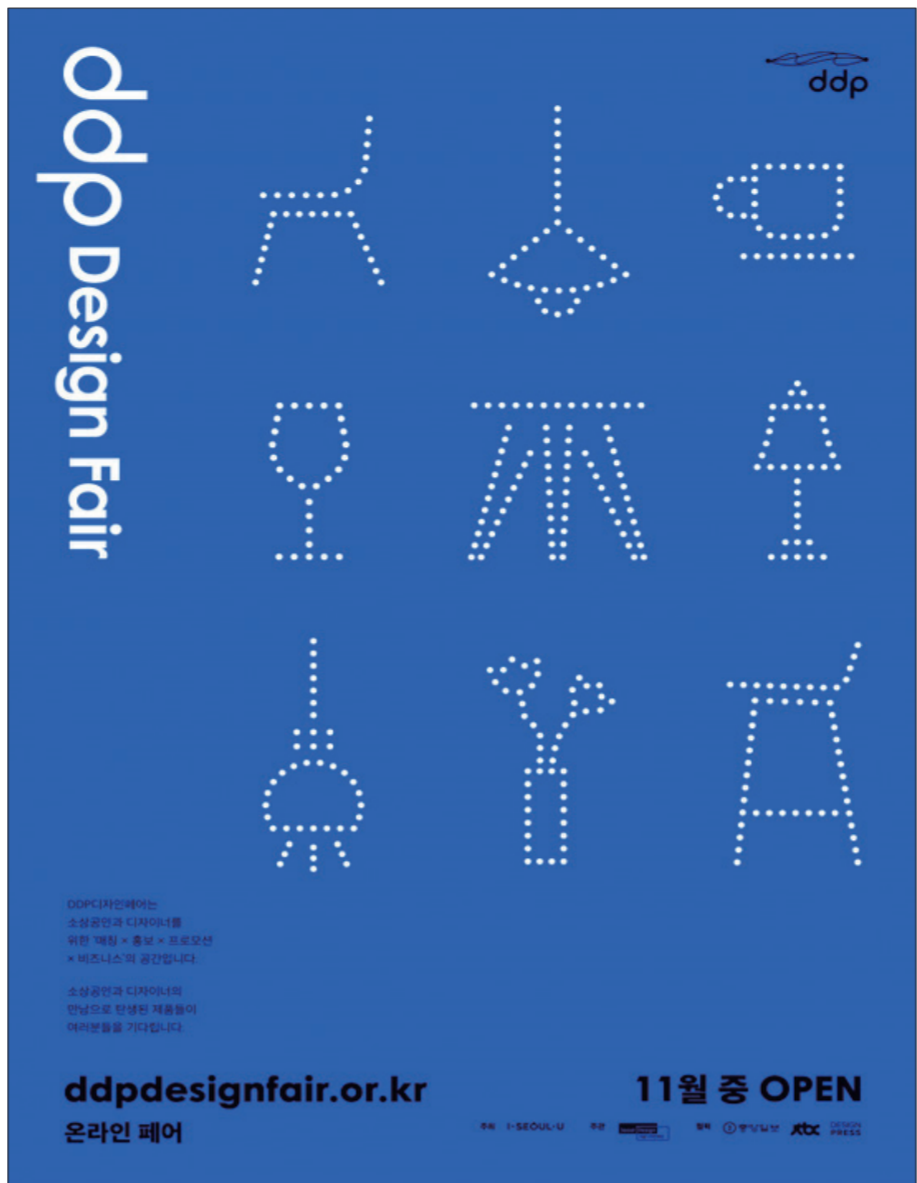
매칭 개발팀이 전년도에 43팀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는 두 배를 넘는다. 협업 문화가 해외에 비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국내에서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서로의 만남에 대해 갖는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가능성'이 소상공인의 제조 능력에 의해 '현실'로 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속적인 워크숍과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고 디자인전문가의 멘토링과 전문번역사의 협업계약 등에 대한 가이드 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제품 제작을 도왔다. 디자인 전문가로는 정미, 손동훈, 가구분야에 하지훈, 김군선, 생활리빙 분야에 안강은, 정소이, 전체 공간연출 및 주제방향 설정에 구병준 가 함께 행사의 큐레이터 겸 매칭팀의 멘토로 활동했다.

올해 2회째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미는 "이번 페어를 계기로 소상공인 디자이너, 제작자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DP디자인페어에 2년 연속 참여하는 가구 브랜드 '탐킨'과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서정적 작업물을 추구하며 작년 DDP디자인페어 신한카드 특별상을 수상했던 '스튜디오 고정호'의 고정호 디자이너는 1인 가구를 위

한 조립형 가구를 선보였다. '철제 공고상 / 한강선반'은 1인 가구를 위한 조립형 가구로 '철제공고상'은 한국의 공고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폴딩방식과 나사로 소비자가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다른 제품인 '한강선반'은 한강이 가지고 있는 스포티한 느낌을 한강 다리의 형태에서 차용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조립형 선반을 구상했다. 본 페어를 통해 3명의 디자이너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미영 대표는 "가구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독창적 디자인에 대한 해소인데 DDP디자인페어를 통해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려 한다"고 고정호 디자이너는 "DDP디자인페어는 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디자인페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체계적인 조명 회사와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를 통해 최적의 조명환경 구현 솔루션을 제공하는 '취향덕기'와 '취향덕기', 라인프렌즈 등과 디자이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용성과 공감성을 중시하는 '메이크메이크'의 신봉건 디자이너는 B2C로 판매될 테이블 조명 'Weight Light'를 선보였다. 제작보다는 국내의 조명 제품을 유통하는 비중이 더 높았던 '황덕기'는 늘 디자인 상품개발에 갈증이 있었다. 본 페어를 통해 신봉건 디자이너를 만나 다양한 제안과 시도를 접했고 본격적으로 메이커 브랜드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김희규 대표는 "향후 제품 양산을 위한 상품개발 발전사항을 더 의논해 많은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을 이야기했고 신봉건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려 노력했다. 단발적 관계가 아니라 추후 다음 제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가 형성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다"고 전했다. 도심 속 낙후된 숙박시설을 재생시켜 청년을 위한 Co-Living 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는 '게릴라즈'는 청년 1인 거주 공간이 휴식과 힐링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될 방법을 고민했고 이를 모멘텀 스튜디오의 유재곤 디자이너가 블루투스 스피커 '젠가든'로 해결했다. 블루투스 스피커 '젠가든'은 물이 주는 시각적 안정감과 패턴을 분석해 주거이자 휴식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디자인했다. 출력되는 소리에 반응하는 조명을 탑재해 소리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물결치는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 뿐 아니라 시·청각적 힐링 방법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유재곤 디자이너는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너지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고 지속적인 전시 유



지를 통해 다양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는데 힘써주길 희망한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DDP디자인페어]는 기존 국내외 디자인 행사와 달리,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협업 런칭 신제품만을 선보이는 '전문 런칭 디자인 비즈니스 페어'로 온라인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더해 그 특별함에 벌써부터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DDP디자인페어] 온라인 전시에서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완성된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메이킹 스토리를 제품별로 관람할 수 있어 마치 짧은 컨퍼런스를 여러 편 보는 듯하다. 또한, 온라인 전시와 연결된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과 소상공인의 기술 노하우 및 작업 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개별 홈페이지와도 연동되는 DB를 구축하고 있고 영문 플랫폼도 갖추고 있어 또 다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DDP디자인페어]는 올해도 여김없이 103개의 제품 중 올해 최고의 디자인 제품 'DDP 베스트어워드'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 투표와 시상식을 실시한다. 투표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전시를 방문한 시

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장 구매를 원하는 제품 총 10개까지 투표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를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천을 통해 리빙제품 등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한다. 시민 투표와 큐레이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DDP베스트어워드' 총 7팀에게는 양산지원비용 500만원과 DDP 디자인 스토어 입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최고의 디자인제품 'DDP베스트어워드'는 12월 14일 온라인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제조기술에 청년디자이너의 디자인 재능을 더해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은 더 큰 사업의 기회를 갖고 디자이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미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DDP디자인페어]가 디자인 산업과 서울의 지역사회가 재도약하고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DDP 디자인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일상에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드넓은 한강공원 속 내 위치 찾기 '어디야? 한강' 앱 개발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씨와 같은 걱정 없이 현재 내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어디야? 한강'을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OS 기능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9에 즉시 위치를 신고할 수도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어디야? 한강' 앱의 주요 기능은 위치공유 SOS 주변시설 공원행사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첫째, '위치공유' 카테고리에선 한강다리와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한 현재 내 위치가 앱을 통해 인식돼 지도에 표시된다.

내 위치를 지인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 지도앱과 연동돼 원하는 위치로 길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지도에 표시된 내 위치에서 설명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위치와 서울 시내 모든 한강다리와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SOS'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이다. SOS를 누르면 문자신고와 119통화까지도 중하나라를 선택해 누르면 바로 신고 되는 방식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공원 인근 응급실과 AED 위치도 확인해 빠르게 길안내 받을 수 있다.

앱과 연동된 네이버 사이트에서 응급처치 요령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 보험 전화'를 누르면 보험사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아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셋째, '주변시설' 카테고리에선 가까운 화장실, 편의점, 자전거대여소 등 편의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4개 분야 16개 정보를 제공하며 최대 7개를 동시 검색해 가까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주변시설은 편의시설, 자전거, 체육시설, 의료시설이다.

넷째, '공원행사' 카테고리에선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정보를 알 수 있다. 앱과 연동된 한강사업본부 사이트에서 행사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전영주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은 "응급상황 시 클릭 한 번으로 시민 여러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의견 청취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www.yyg.go.kr

FOO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맘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의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믿고 먹는 영양군 농특산물 시리즈

대한민국 명품 으뜸영양고추 · 산간고랭지 영양예실참사과 · 아삭아삭 시원달콤 영양배 · 피부미인 영양복숭아 · 저농약인증 영양포도 · 해발 1,219m 영양수박 · 비타민 단단 영양고랭지제초 · 산에서 나는 고기 영양더덕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영양바섯 · 전국 생산량 70% 영양천궁 · 고랭지 무공해 영양잡곡 · 펌으로 기른 영양임대배

지역화폐 새 역사 쓰는 서로e음,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

출시 이후부터 화제를 모으며 전국 지역화폐 기록을 갈아치운 서로e음이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놀라운 성장만큼이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자식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 편리성과 탄력적인 캐시백 정책으로 시즌1을 안착시킨 데 이어 전국 최초 공공배달업인 배달서구와 온리서구물·남남서구물 등 온라인소싱물을 내세운 시즌2까지 연달아 성공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 주역으로 우뚝 선 서로e음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이전 서구는 지난 20~21일 열린 ‘2020 제2회 자치분권 포럼’에 참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 공유와 토론의 장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당초 기획했던 박람회 형식이 아닌 포럼 형식으로 규모도 축소됐다. 참가 인원 역시 제한된 가운데 세션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열렸다. ‘자치분권 국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개막식을 시

작으로 기초 강연, 협의회 정기총회, 지방자치분권 아카데미, 4개 소주제별 자치분권 콘퍼런스, 초청대담, 지식포럼 등이 펼쳐졌다. 서구는 위 프로그램 중 기초지방정부의 정책 모델 도출 및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의 시작, 서로e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국 최고 역외소비를 높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율 수도권매립지 등 열악한 환경 부족한 인프라 신도시와 구도심의 극명한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음’이란 연결고리를 생각해내고 이를 플랫폼에 기반한 지역화폐로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됐다. 기존의 관 중심에서 탈피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매니저와 구민홍보대사까지 철저히 민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한 결과, 서로e음은 기대를 한껏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용자 수만 해도 38만1,030명으로 지역화폐 발급 가능 인구의 80%를 훌쩍 넘길 뿐 아니라 발행액은 기초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 역사상 최단기간 최고액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파급효과에 따른 생산 유발과 고용증대 또한 상당하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에 이어 자치분권 모델 사례 구축까지 해냈음을 소개하자 콘퍼런스에 참가한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열띤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을 위한 질문을 쉴 틈 없이 이어갔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우리 서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미 깊은 행

사에 참가하게 됐다”며 “운 좋게도 서구의 자랑인 서로e음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데다 많은 분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포럼을 통해서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다수 발견했다”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분석해 서구에 맞게 적용해나감으로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서구의 매력을 한층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평택시 도시숲 및 바람길숲 명칭 공모 시상식 개최

평택시가 지난 20일 평택시 도시숲 및 바람길숲 명칭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평택시 도시숲의 대표 명칭’과 바람길숲 조성 사업의 4개 구간인 ‘국도 1호선’, ‘통복천’, ‘진위천’, ‘안성천’ 등 이상 5가지 부문에 대해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28일간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총 255건이 접수됐다.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 김주영씨 등 공모에 선정된 8명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도시림 등 조성·심의 위원회 심의 등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도시숲 대표 명칭은 ‘평택 시민의 숲’이 결정됐으며 바람길숲 대표 명칭으로는 ‘국도1호선 - 그

린터널숲’, ‘통복천 - 맑은숨 행복숲’, ‘진위천 - 별빛 담은 숲’, ‘안성천 - 산들바람숲’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 김주영씨는 “평택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사업에 이런 기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항상 애쓰시는 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분들이 도시숲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시숲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숲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당정 정책간담회’ 열고 현안 논의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2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분권형 국가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2021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50억원 줄어든 2조 6612억원으로 최악의 재정 여건”이라며 “시민 삶의 질



과 맞닿아 있는 수원의 현안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수원 당수 1·2지구 통합개발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향·대책, 수원 팔달경찰서 조속 완공, 수원수목원 조성 등 수원시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성윤기자

양주시에 좋은 기운을 나누는 가게 ‘좋은나눔가게’를 소개한다.

양주시는 2016년 이후로 꾸준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양주시에 오픈하고 있다. 이 중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저금통을 가게 내에 배치해 양주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다. 이러한 가게들을 ‘좋은나눔가게’라 하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작한 현판을 가게 내에 부착했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좋은나눔가게’ 업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기운으로 지역사회를 물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좋은나눔가게는 저금통 뿐만아닌 지속적으로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후원업체도 포함된다. 양주시 삼송동에 위치한 ‘반찬카페 콩’은 혼자서는 식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 2가정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밑반찬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나눔을 하는 가게는



언제든 ‘좋은나눔가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

관으로써 양주시에 많은 가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

‘대구공항 이전해도 통합신공항 이용 늘어날 것’

군위군은 2020년 10월 5일 ~ 11월 16일까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대구·경북 31개 시군구 6,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대구공항이 전으로 인한 이용객의 변화와 통합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는 데 의의가 있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60km 이내 39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경북 인구 506만명의 78.7%에 달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대부분의 주민이 신공항을 이용하는데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대구·경북 거주자의 공항이용 현황을 보면 ‘대구공항’ 61.6%, ‘인천공항’ 21.5% ‘김해공항’ 10.8% 순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과 현재는 의되고 있는 고속도로

공항공로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완료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74.7%, ‘김해공항’ 10.3%, ‘인천공항’ 7.8%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나타나 통합신공항 이용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항 위치가 현재보다 북상함에 따라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북 ‘북서 북동지역’의 이용률이 기존 대비 약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김해공항’으로의 이용객 유출이 상당했던 ‘남동지역’의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이용률이 1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원하는 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 구축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 최우선 선호정책으로 ‘도로·대중교통수단’을 43.1%의 비율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도민의 경우 개인교통수단을 차순

위로 선택한 반면, 대구시민은 철도 교통수단을 차순위로 선택해, 서대구역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는 경북도민의 경우 ‘도로·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은 반면, 대구시민은 ‘공항철도 연계 교통망 확장 등 철도 수송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통합신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 운

영 정책 분야에서는 ‘운항노선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첨단공항 시설’을 차순위로 꼽아 기존 대구공항의 부족한 취항 노선과 낙후된 공항 시설 개선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은 이번에 조사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항공여객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신공항을 보다 크고 운항노선이 다양한 첨단공항을 건설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류석/대구지



영양군,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11월 23일 소회의실에서 김중헌 부군수 주재로 국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부합동평가 106개 지표 중 정량지표 84개에 대한 10월말 기준 실적점검 및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지표 부서장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보고로 진행됐으며 올해 평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실적 부진한 지표 위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양군은 부진 지표 개선을 위해

부서방문 면담 실시, 부진지표 점검 보고회 개최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서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중헌 부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목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시군도 같은 여건인 만큼, 부진한 지표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경북도,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선정으로 21억원 확보

AIoT 기반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행안부 공모 선정

경북도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한 ‘AIoT 기반 3중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사업’은 지역별로 직면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실증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R&D지원 사업이다.경북도가 제안한 ‘AIoT 기반 3중 집합 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높고 잦은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북의 특수성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획됐다.이번 사업은 노후시설물에 부착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와 영상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연구계의 재난·안전 전문가들과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체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이후 현장실증을 통해 휴대폰 앱을 이용한 양방향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플랫폼이 개발되면, 현재 현장 점검-진단-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2-3일까지 줄여 신속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복점검이 필요 없어 점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이목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진 등 대형재난에 따른 노후시설물 붕괴사고가 많아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일상이 화보인 그녀 안젤리나 다닐로바, 안동에 반하다

하회마을, 도산서원, 월영교 다녀가며 전 세계에 안동 소개

대한 외국인, 즐거운 챔피언 등의 에프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각종 CF와 뮤직비디오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안동을 방문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도산서원과 안동 핫플레이스 월영교를 방문하고 먹거리도 체험하며 아름다운 가을 풍광에 더해 남십을 저격하는 그녀만의 사랑스러움을 총 5편의 영상으로 담았다.이번 여행 영상에서 한복을 입은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놀랄만큼 능통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영어 나레이션으로 전세계에 안동을 알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실제 그녀는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 세르비아어 등 5개 국어를 구사한다고 한다.먼저 해동주자라 일컬어지는 한국 최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유생들을 교육하며 학문을 쌓던 도산서원에 방문했다.서적을 오래 보존하고 제자들이 학문 증진에 전념하도록 설계한 건축구조를 감상하며 예부터 학문을 사랑했던 한국인의 정서를 느꼈다.특히 농운정사‘관란헌’이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아름다운 표현이 담겼으며 놀라워 하기도 했다.한편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대한외국인’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 훌륭한 당면, 부드럽고 매콤한 육질의 안동찜닭을 맛보고는 공깃밥을 소스에 비벼먹는

꿀팁을 소개하기도 했다.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에서 가장 긴 목책교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지에 선정된 월영교이다.다리에 깃든 원이엄마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기원하며 현실 엘프라 불리는 외모만큼이나 멋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이곳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전통레저보트 ‘문보트’도 탑승했다.최근 음악에프프로그램인 비긴어게인에 홍보되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마지막 여행지로 한국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외국인에게 큰 인기를 끄는 하회마을에 방문했다.600년이 넘도록 하회마을을 수호하는 삼신당 느티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고 그녀만의 비밀소원을 밝혔다.또, 하회마을 내 1862년 경상도 도사를 지낸 류도성이 지은 북촌택에서 아름다운 전통한옥 경치를 감상하고 한국 고유의 주거양식인 온돌도 체험했다.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 도시이자 바이러스 프리 언택트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안동시가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안동 공식 유튜브채널인 ‘마카다안동’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의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기자

의성군, 경북도 에너지대상 평가 우수상. 3년 연속 수상

의성군이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우수 시책을 공모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이루어졌다.의성군은 공공기관 LED 보급률 향상,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홍보와 계도,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 올해 신축 보건소 옥상 및 주차장과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등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사업을 진행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전 공직자가 합심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몽호/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나주혁신도시, 일자리·기업유치 전국 으뜸 ... 지역 성장동력 이바지

사업체, 종사자, 여성 고용, 상용노동자 수 증가율 전국 최대치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근 5년 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주 혁신도시는 사업체, 종사자, 여성 고용,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 해당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나주 혁신도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성장동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주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 7633개로 2007개 늘어나며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웃도는 가장 큰 증가

율을 보였다. 나주 혁신도시 다음으로는 충북이 뒤를 이었고 부산이 5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체 증가율은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최근 5년 간 일자리 고용증가율 또한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 총 고용 수는 2만8696명에서 2017년 4만6381명으로 63.6% 증가하며 이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증가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 인력의 고용 증가율이다. 나주 혁신도시 사업체의 여성 고용 수는 2012년 1만2403명에서 5년 뒤 1만8910명으로 52.5% 크게 뛰며 증가율이 전국 탑 순위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에 기준한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유관업종 관련 종사자의 집적도 수준도 약 4.6배가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이전 기반산업이 현재 기반산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의 고용의 질,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증가와 직결되는 상용 노동자 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나주 혁신도시의 상용 노동자 수는 2012년 1만8528명에서 2017년 3만2447명으로 75.1%나 늘어났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혁신성장 부문 종합결과에 대해 "혁신기반과 모두 지역의 혁신역량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증가 및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고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나주시에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총 391개로 이중 혁신산단,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유치 기업은 278개였고 광주 등에 유치가 113개였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전인 2012년부터 5년 간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는 1570개, 일자리 수는 1만3556명으로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는 나주 혁신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제공

대기오염 경보발령 상황, SMS로 실시간 확인 가능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대기오염 경보발령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도민들은 이 시스템의 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시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발령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팩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대기측정소는 도시지역의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와 6개 대기오염물질, 기상자료를 상시 관측하는 국가대기오염 측정망의 하나다.

전국 총 463개소가 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38개소를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은 도내 모든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이다. 지난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구축해 도민들에게 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 경보제는 미세먼지 또는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해 기준도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등을 발령하는 제도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유관기관과 함께 도민들에게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향선 대기질관리과장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 된다"며 "신속한 대기질 정보 상황 전파로 도민의 생활환경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보성군 청년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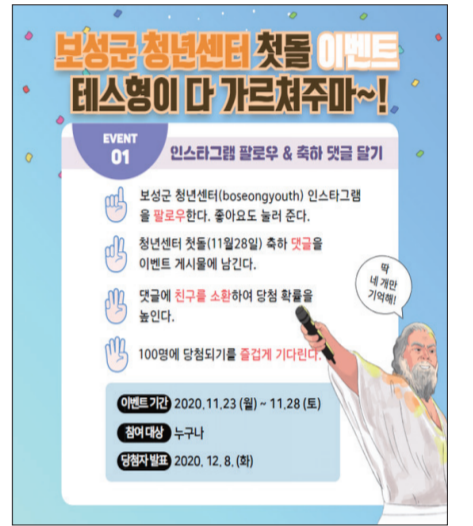
청년들이~ 반짝 반짝 빛춰라

보성군은 오는 28일 "보성군 청년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청년센터 활성화 운영 및 청년정책 등 홍보를 위한 1주년 기념 이벤트를 갖는다. 이벤트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청년센터 방문, 인스타그램 팔로잉, 친구소환 및 축하메시지 댓글달기와 포토존 이용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참여자에 한해 다양한 기념품 등을 증정한다.

보성군은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해 '보성 청년 밴드 운영', '슬기로운 보성 청년 유튜브 교육', '라탄, 양말목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에서 결성한 '보성 청년 밴드'는 지난 21일 우리원농장에서 첫 버스킹 공연을 가졌다.

청년센터에 마련된 유튜브 제작 공간은 보성군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유튜브 교육으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청년센터의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하고 청년 자생력 고취를 비롯해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불법주정차 5대 금지 구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알리

완도군은 지난 20일 빙그레공원과 5일시장 등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완도군을 비롯해 완도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웃음택시회, 안전보안관 등 9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는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5대 금지 구역을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에 대한 안내문과 마스크를 배부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관내 시설 이용 시 출입 명부 작성,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청정완도 생활방



역 5대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도 점검했다.

봉진문 완도 부군수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대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곳이다"며 "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

책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꼭 의무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영욱기자

목포시,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미리 대비하세요~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 24시간 운영

목포시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꼭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각종 생활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도계량기의 동파, 동결 예방조치 방법으로는 계량기함 내부를 헝웃 등의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밀폐해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꼭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필히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 수도관이 동결되는 것에 대비토록 하고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수도관을 천천히 녹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 운영하고 있다. 동파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겨울철에도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한국재료연구원 출범, 소재강국 실현과 창원 新제조시대 대전환점 될 것”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재료연구원 출범 맞아 축하 메시지 발표



창원시는 ‘한국재료연구원’ 출범을 기념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허성무 시장은 “104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한국재료연구원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지난 2년 반동안 창원과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재료연구원 승격을 위해 애썼던 시간들을 회고했다. 아울러 ‘한국재료연구원’ 시대의 개막이 높아지는 기술장벽과 수출규제의 파고를 넘는 소재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 신제조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료연구소 “원” 승격은 4월 29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11월 20일 한국 재료연구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다음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한국재료연구원 출범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창원 재료연구소가 정부 독립 연구기관으로 승격되어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104만 창원시민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지난 2년 반 가까이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원’ 승격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하며 특별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재료연구원’ 시대의 개막이 높아지는 기술장벽과 수출규제의 파고를 넘는 소재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에 신제조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소재 원천기술의 확보야말로 우리 기업을 힘겨운 추격자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끄는 선도자로 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도 소재기술 연구가 산업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실증 연구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창원의 자부심이자 자량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연구개발 허브로서 전 세계에 이름 높은 연구기관으로 무한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봉호/기자

보성군, 백록다원 백종우 대표 농업발전유공 산업포장 수훈

대한민국 차산업 발전 공로 인정...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파”



보성군은 23일 백록다원 백종우 대표가 농업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산업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되며 농업분야 산업포장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소득증대, 신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한 농업인에게 수여된다.

백록다원 백종우 대표는 1998년 고향인 보성으로 귀농한 후 20년 넘게 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 대표 농장 ‘스타팜’으로 지정되면서 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백 대표는 일찍이 친환경 농법 재배를 실시하고 주변 농가들에게도 전과시킴으로써 친환경 단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심 먹거리 제공에

힘썼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에 뛰어들어 6차 산업의 틀을 마련하고 녹차씨앗을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등 새로운 소득 창출원 발굴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종우 대표는 “보성 차산업 발전

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들라는 의미에서 이 상을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모든 차 농가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농업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영안/기자

산청군 동의보감상 수상자 시상

이혜정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가 23일 오후 단성면 남사에담촌 기산국악당에서 제16회 동의보감상 수상자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동의보감상 수상자는 학술부문에 이혜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사회봉사부문에 황만기 서초아이누리한의원 원장이 선정됐다.

학술부문 수상자 이혜정 교수는 침구경락학 기초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처음으로 만드는 등 관련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인물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장기과제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국내외 대형 연구에 참여해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기틀을 다진 점, 침구경락의 과학적 연구팀 운영을 통해 연구업적을 생산하는 한편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봉사부문 황만기 원장은 26년 동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두 분야에 걸쳐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 원장은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캄보디아와 페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오지마을을 찾아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산청목야박물관 관장이

제작한 상패가 수여됐다. 동의보감상은 한의학의 육성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정신을 실천한 봉사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송인용/기자

홍천군청 역도팀, 전국대회서 신기록 갱신

홍천군청 역도실업팀 송영환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신기록을 갱신했다. 송영환 선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양구군 용화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8회 전국 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남자 +109kg급에 출전했다. 송 선수는 인상 170kg과 용상 229kg 합계 399kg으로 종합우승과 동시에 용상에서 대회 신기록을 갱신하며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송 선수는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2020년 한국실업연맹역도대회장배’에서도 용상 221kg 금메달 1

개, 인상 168kg 동메달 1개, 합계에서 389kg으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홍천군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송 선수는 “홍천군청 실업팀 선수로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훈련에 집중해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월 창단된 홍천군청 역도실업팀이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장수군 청원조회, ‘민선7기 후반기 미래상 전해’

장수군은 23일 군민회관에서 장영수 군수, 장형섭 부군수, 실·과·원·소장 및 부면장,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조회를 실시했다. 이번 청원조회를 통해 장영수 군수는 2020년도 사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조직개편 중점사항,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장 군수는 장수군의 생산위주에서 농산물 가공과 판로확대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신설, 장수한우지방

공사를 농식품유통공사로 개편하는 등 농업정책방향을 중점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강조했다. 또 농산물 종합유통가공센터를 통한 농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행정에서 이끌어 돈버는 농업·농촌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 후반기는 장수 548정책을 통해 지금보다 잘 사는 군민, 살기 좋은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순천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이끈다

11월 23일 국회에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열려

순천시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단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송갑석 간사, 신정훈 의원과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 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재·부품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와 산업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주관했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자동차용 판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중심으로 해룡산단에 국가예산 3천억원

투입하기로 대통령이 공약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었다. 하지만 기술성숙도가 낮고 수요처가 적어 상용화가 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하고 급기야 포스코가 마그네슘 판재사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마그네슘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아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의 잠재 성장력을 높게 판단한 순천시에서는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원을 확보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마그네슘 소재·부품 관련 기업 및 해외 기관·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다.

또한, 투자회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포스코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인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포스코가 원천 기

술 R&D 투자에 집중하면서 세계 일류 기술을 확보한 토대 위에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인트리파트너스가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과거 포르쉐 자동차 상판에 마그네슘 판재적용을 성공시킨 뒤 이의 확대적용을 위한 정부 과제를 독일 폭스바겐사와 공동수행 중이고 미국 GM, Ford, Fiat-Chrysler의 공동연구 컨소시엄인 USAMP의 자동차 경량화 프로젝트에서도 PPM의 마그네슘 판재가 실증용 소재로 공식 채택되는 등 마그네슘 중심의 그린모빌리티 시대 도래가 한층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주체인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국내 마그네슘 소재·부품 관련 기업 70개 중 50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였고 그 중에서 12개 기업은 올해부터 마그네슘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하게 장비만 구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용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처 발굴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일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소에서 독립연구원으로 승격한 한국재료연구원(원)은 마그네슘 합금 개발 등 국내 마그네슘 소재의 선두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업 기술지원은 물론 해외 기관과 연계를 통한 상용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천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이 활성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국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진단하고 국내 기업 애로기술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해 순천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허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최하은기자

경남도, 제조업 ‘디지털 전환’ 준비 착착

제조혁신 이끌어갈 ‘스마트제조

공정혁신 데모공장’ 착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가 20일 창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데모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과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의 1호 사업이자 4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데모공장은 제조현장에 적용될 첨단 기술을 미리 구현해 시험해보는 ‘개방형 스마트 제조기술 시험장’이다. 기계, 항공, 방위산업 등 경남의 주력산업의 각종 제조공정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재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식 사업명칭은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이다. 첨단 디지털 제조기술을 실제 공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먼저 적용해 시험해 봄으로써 제조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즉 ‘디지털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핵심부품과 장비의 내구 수명 예측, 고장을 검증 위한 평가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해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도 지원하게 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제조 선진국들 역시 ‘개방형 혁신 센터’를 통해 맞춤형 연구개발, 검증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데모공장 기반 구축에 필요한 주요 시험 및 생산장비와 인공지능 제조기반 등을 우선 개발 중이다. 내년 말까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국비와 지방비 450억원을 투입해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창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연면적 7,500㎡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혁신해 나가는데 스마트그린산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남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스마트제조업 공정혁신 데모공장”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남권이 그 핵심 축으로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직접 추진해왔다. 그 결과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2월 최초의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산업을 ‘스마트-그린 뉴딜’로 재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산단인 ‘스마트그린산단’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7일 창원에서 있었던 ‘스마트그린산단 보고대회’에 참석해 “경남창원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모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경남도의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남창원스마트그린산단의 4대 핵심사업 중 나머지 3개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지난해 7월 선포식을 갖고 본격 추진 중이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지난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송인용기자



부산-충청 우호협력 체결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두 도시 간 우호교류 10주년을 회고하며 협력파트너십 강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부산-충청 우호협력도시 10주년을 맞아 사진전 등 다양한 비대면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청시는 인구 3,100만여명의 중국 서부지역 최대의 도시로 3,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의 중서부지역 유일한 직할시다. 부산시와는 지난 2010년 12월 2일 우호협력도시를 맺었다.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충청 공동 사진 전시회 부산시립예술단 축하공연 영상 제작 부산문화재단 주최 ‘2020 청년 아트페어(온라인) 충청 청년작가 6명 작품 초청전’ 등으로 구성된다.

기념행사의 첫 출발은 부산시와 충청시 상호 간 도시홍보 사진 전시회이다. 전시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며 부산시는 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충청시는 완상정 소풍물 광장에서 양 도시의 홍보사진을 각각 전시한다. 또한,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10주년 기념 축하 공연 영상을 제작해 충청시에 보낼 예정이다. 청사표, 을숙도 등 자연경관 명소를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해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부산의 관광명소도 소개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리는 ‘2020 청년아



남궁영기자

“AI산업 성공여부, 인재확보에 달려”

광주시, 23일 서울시 시보고대회 개최...MBN·광주과학기술원 공동주최

광주광역시시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공지능사업과 관련한 정부, 법조·금융·산업·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초인 AI가 온다’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AI가 바뀌는 미래를 전망하며 인공지능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인재 양성과 기술 확보, 제도 마련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광주광역시와 MBN,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김태년, 주호영, 권은희 원내대표와 김영진·양향자·윤관석·김진표 의원, 박보경 청와대 경제보좌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서 우리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면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과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광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일지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내며 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AI산업의 성공여부는 AI 인재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주과학

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대학의 AI대학 및 학과 개설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나라가 온통 코로나19와 싸우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난 1년간 인공지능 기업·기관 52곳과 MOU를 체결했고 이중 34개사가 광주에 동지기를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광주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인공지능은 21세기를 지배할 패러다임이다. 10년 안에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국가가 2100년까지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과 함께 전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융합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10만명 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AI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양질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박넷과 뛰겠다”며 2022년까지 AI인재 5천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3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10개 분야 150종의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AI분야에 2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윤기자



평택 지제역 동문곳모닝힐맘시티 2차

‘오산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스케일이 다른 커뮤니티 선보인다

-지역 최대규모의 커뮤니티 구성... 약 11,000㎡ 규모
 -오산 최초의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멀티코트 등 격이 다른 시설 구성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키즈짐, 다이닝공간, 비즈센터 등 다양한 공간도 마련

경기도 오산시 최초의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는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가 스케일이 다른 커뮤니티를 선보인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단지는 지역 최대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오산 최초의 시설 등 격이 다른 구성으로 통해 입주민의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약 11,000㎡의 대형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크게 액티비존, 패밀리존, 에듀존, 컬처존 등으로 구분돼 구성된다.

액티비존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

설이 마련된다. 특히 최근 고급 아파트 단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실내수영장(유아용 풀장 포함)이 오산 최초로 조성돼 주목된다. 이 밖에도 12개 타석의 실내골프클럽, 20여 종의 운동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2개층 높이의 멀티코트가 조성되며, GX룸, 탁구장, 건식사우나 등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단지 입주민은 굳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365일 편안하게 운동 및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패밀리존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구성된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키즈짐을 비롯해 연령대별 육아 및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외부 손님 및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룸, 어르신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교류할 수 있는 경로당 등이 조성된다.

또 에듀존은 어린이 전용 학습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북카페 등이 마

련되며, 컬처존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홀과 공유오피스와 취미공간을 제공하는 비즈센터, 조식서비스와 다이닝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 꾸며진다. 분양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만큼, 입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단지 내 커뮤니티를 도입하게 되었다"라며 "뿐만 아니라 단지는 특화 조정 설계를 통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굳이 멀리 나가지 않

고도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이 가능하게 돼 입주민의 주거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다양한 특화 조정 설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 동측에 마등산, 서측에 수변공원 조성이 계획된 배산임수 입지를 활용하는 조정 설계를 통해 쾌적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는 우선 주변 녹지 및 공원을 중앙 광장으로 연결해 개방감과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했다. 또 벗어나 무료 꾸민 메인 산책로 ‘블라썸로드’를 조성하고, 수경시설과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리조트플라자’를 구성해 4계절 휴양지 속속에 온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하는 감성 정원 ‘그린테라스’와 창의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공간 ‘플레이가든’과 ‘키즈가든’, 운동시설이 마련된 ‘웰니스가든’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된다. 이처럼 입주민의 힐링 생활에 신경 쓴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8개 동, 전용면적 65~173㎡P, 총 2,3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다양한 타입을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으로 타입별 세대 수는 ▲65㎡ 445세대 ▲74㎡ 217세대 ▲84㎡ 1,515세대

▲93㎡ 67세대 ▲108㎡ 76세대 ▲127㎡ 15세대 ▲169㎡ 1세대 ▲151㎡P 2세대 ▲173㎡P 1세대로 구성된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우수한 교통, 교육, 편의를 모두 가깝게 누리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반경 2.5km 내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환승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1번 국도와 경부고속도로 오산IC도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또 단지 바로 앞에는 원동대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개통 시 약 5분이면 동탄신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 더불어 단지는 출퇴근 시간에 동탄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동탄신도시의 인프라는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는 원당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성호중, 운암중, 운전고, 성호고, 운암고 등도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이 밖에도 주변

에는 롯데마트, CGV, 오산 한국병원, 오산 종합운동장, 오산시청, 경찰서 등 편의시설과 관공서가 자리해 이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누구나 믿고 보는 톱 클래스 명품 배우 이정재가 광고 모델로 참여한 다.

이정재와 함께하는 이번 광고를 통해서 휴식이 일상이 되는 공간이 되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과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단지의 키 메시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산 최초이자, 최고, 최대의 아파트로 만들어질 롯데캐슬에 산다는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함께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오산시 원동 176-1번지 일원에서 11월 오픈 예정이다. 현재는 전화 예약제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김남주기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